

체험된 복음 (창세기 26:12-25)

오늘 말씀은 체험된 복음이다. 내 것이 된 복음이라는 뜻이다. 복음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와야 한다. 그래서 각인된 복음이라는 뜻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것이 되고 각인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반드시 정복한다. 복음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아무도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까지 복음을 이긴 사람은 없다. 앞으로도 없다.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복음에 정복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 안에 모든 약속을 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고 세상의 답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안한다. 인간이 타락해서 복음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안들어온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답이 있는데 그걸 안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맘대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만 인간은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은 스스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간혹 보면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이미 찾기 전에 하나님이 뒤에서 해놓으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 준비해놓으신 것이다. 어느날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인 줄 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발버둥치기도 한다. 결국은 답이 없고 종착역은 결국 영적인 방법 밖에 없다. 자기 나름대로 답이라 생각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무당을 찾아가든지 소위 예언자를 찾아가는 그런 영적인 방법이다. 어디서 절을 한다든지 그런 영적인 것을 마지막에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본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였고 타락한 이후에는 타락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끝에서는 마귀를 찾게 되어 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심해진다. 결국 사단에게 잡혀서 인생을 끝내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자주 들어서 당연한 듯 하지만 이게 아무리 빠져나오려 해도 안된다. 무슨 일을 해도 구원 못 받고 땅에서도 계속 문제가 온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기가 막힌 운명에서 나오는 방법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아무리 해도 결국은 안되는 운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늘 이야기 한다. 약속의 피제사, 그리스도의 보혈, 이 답을 답으로 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리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문이 자주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24, 237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 오늘 이삭이 바로 이것의 중요한 증인이다. 육신적으로 힘있게 산 것이 아니다. 언약 하나로 승리한 것이다. 싸움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물론 싸움할 힘도 없었을수도 있다. 그러나 힘이 답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으로 살았냐면 복음 하나로 조용히 붙잡고 살았다. 이삭처럼 살면 아무도 못 이긴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란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다 과정이다. 복음의 답을 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이 깊이 각인되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세계복음화 증인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1. 체험된 복음

체험되어서 내것이 된 복음이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과 샘의 근원으로 대표되는 사람이다. 한해 농사가 100년치가 나온 것이다. 또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샘의 근원을 얻은 사람이다. 조용하게 그 지역을 정복한 사람이다. 샘의 근원이면 그 지역의 모든 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인데 그 왕이 이삭에게 이야기 했다. 니가 우리보다 더 힘이 있으니 떠나라고 한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왕이 보니까 환장할 노릇이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우물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우물과 같은 응답이 나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왜 역사했는지를 초점으로 잡아야 한다.

이런 축복은 당연히 언약 안에 약속되어 있다. 이정도의 응답이면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정복한 것이다. 분명히 아직도 영적 의미에서는 저주가운데 있지만 저주가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축복은 당연히 복음안에 있지 다른데에는 없다. 그래서 그 권세, 약속, 언약 안에 하

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언약이다. 이삭은 이 언약이 확실하 뿌리 내린 사람이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렸던 사건이 떠오른다. 잘못했으면 번제로 드려질 뻔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솟양이 준비되어 대신 죽었다. 아마 이삭은 이 충격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머리 속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솟양, 이것이 평생을 두고 각인되고 수시로 생각나고 감사했을 것이다. 평생을 두고 각인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갈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그것은 아니다. 우리도 복음 누리면 이삭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솟양을 생각하는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때 그 사건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이삭에게는 언약을 심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다. 그 사건은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삭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언약이 각인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 나이가 렘넌트 나이였다.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은 그때 체험된 복음이 어떻게 이삭의 인생에 나타났는가를 기록한 장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복음안에서 일어난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지 복음 밖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이 언약을 이삭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신 것이다. 이삭에게는 큰 은혜였고 이삭의 인생에 전부였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체험하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체험된 복음이 시간표를 따라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왕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이삭을 못 이겼던 것이다. 이삭이 힘이 세서 칼을 잘 휘둘러서 이긴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못 이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그 지역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서 양보해도 괜찮다. 힘 없는 것 같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녀도 괜찮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파놓은 우물을 빼앗겨도 상관없다. 또 샘이 나온다. 어찌 된 일인지 응답은 계속 이삭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 권세이다. 저도 이기는 것이다. 복음 밖에는 지면 지는 것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지는게 아니라 진짜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죽어도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 지는 일은 절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멀리 보면서 살아야 한다. 자꾸 눈 앞에 것만 보면 속는다. 지는 것 같다. 그러나 지는거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이삭이 생각해 보면 파놓은 우물 뺏기고 쫓겨다니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내가 쫓구나라고 생각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자가 싸워서 지면 비참하다. 자존심상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멀리 보고 살라는 것이다. 언약 잡고. 결국은 어찌 되었는가? 왕이 찾아와서 무릎 꿇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내 사이에 침범하지 못하게 조약을 맺자고 왕이 말하게 된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기도는 복음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 없으면 기도 아니다. 전도도 복음안에 있는 것이다. 불신자는 관계 없는것이고 신자가 받는 모든 응답은 복음안에 있다. 다른데는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안하는 것은 영적문제이다. 고쳐야 한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양보를 해도 괜찮고 쫓겨다녀도 괜찮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자기가 체험한 근본 언약, 솟양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삭을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다. 누가 이삭을 이기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체험된 언약 하나로 모든 것을 뛰어 넘는 것이다.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쫓겨다니면 어떻게 정복을 하나? 복음은 상관없이 쫓겨다녀도 정복해버리는 것이다. 이삭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셨다.

요셉도 마찬가지였다. 감옥에서 얼마나 말할 많았겠는가? 말 안했다. 그 힘은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다. 꿈을 통해 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기를 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시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말 안하는 것이다. 자기도 거부이고 종들도 많았다. 왕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맞붙었을 때 왕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온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물 빼앗고 할 때 전정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이삭은 안했다.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게 답 아닌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삭은 답이 있는 사람이었다. 복음. 내가 그때 그날 내 대신 죽은 숫양. 이삭은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예수님 알고 있었다. 시로 고백했다. 하나님은 숫양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는 완성된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안에 깊이 들어가는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 뿐이다. 기도제목이 이거 하나 뿐이어서도 괜찮다. 내가 진짜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리스도 집중하게 해주세요. 나도 성경 인물들처럼 거거 하나로 끝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 되면 우리도 이삭같은 인생 살수 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왕이 친구들과 함께 조약 맺으로 왔다. 혼자 오지도 않았다. 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냐면 증인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래서 조약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안하면 죽기 때문이다. 이삭이 화가 나면 그왕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 이삭이 그 지역을 정복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28절에 왕이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느구나.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아무리 뺏어도 자꾸 우물이 나오는 것이다. 자기들은 안 나오는데. 농사를 지으면 100배가 나오고, 양을 치면 새끼를 낳으면 튼튼하게 나오고 자기들이 못 따라가는 것이다. 왕이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 왕이어서도 체면이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하겠는가? 상당히 오래동안 살피었을 것이다. 진짜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삭을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증거를 주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축복,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역을 정복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포인트이다. 복음이 이미 와 있는데 내것이 안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듣던 이야기이지만 새롭게 들리기 바란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 그것이 답인줄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고백할 때 그것이 개인적으로 잡는 시간이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응답 받는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속하면, 예배, 기도, 전도에 지속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응답만 받고 전도 안하면 반드시 한계 온다.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다. 내 인생을 이 전도와 선교에 드려야 한다. 마음을 여기에 담아야 한다. 안되면 영적 문제인줄 알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 그래야 체험이 된다. 문제가 왔을 때 이 언약으로 도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종교이다. 그러면 사단에게 당한다. 문제가 오면 누구든지 불안하다. 불안하든 안하든 언약으로 도전해야 한다. 흑암세력을 꺾어야 한다. 다른 방법은 답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237, 치유, 서밋같은 기도제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마음이 일치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간도 걸린다. 회개도 하고..여하튼 여기에 일치해 되어 하나님과 나하고 통해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체험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물론 이렇게 안되어도 상당한 응답 받을수 있다. 그러나 정말 경계 응답도 받고 지역도 정복하는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내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다른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삭처럼 정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실수 했는데 역전되어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권위이다. 나는 공부부를 너무 못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았더니 인생이 역전되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전도이다. 사람을 못 살리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응답 우리도 받아야 한다. 우리도 대부분 이런 생각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를 못한다.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복음 체험하고 되어지는 인생 체험하기 바란다.

2. 현장 말씀

복음을 체험한 이삭에게 숫양이 근본이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현장 말씀도 있었다. 이 말씀은 이삭의 인생이 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이었다.

3절의 말씀이다. 그때 기근이 들어서 애급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땅에 있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삭은 기근이 있어도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과 함께 하셨다. 이처럼 우리도 이삭이 누린 숫양, 근본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황에 따라 주시는 말씀도 있어야 한다. 근본언약안에서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 나의 전문분야에서 1등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이다. 때를 따라 주시는 현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전도자는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20년 넘게 복음운동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계속 문을 열고 복음과 함께 전도를 전담해줘야 한다. 미국 교회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첫째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니 자꾸 왜곡된 성격해석과 신학이 나오는 것이다. 복음을 바로 알면 잘못된 말이 안 나온다.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의 바울을 중심으로는 전도에 대한 비밀이 나온다.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거 모른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일대일 전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깊은 전도, 조직전도가 있다. 대부분 전도가 일대일 전도에서 끝나버린다. 그거 안할려고 우리가 캠프때 공부하는 것이다. 팀사역전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출발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에는 많은 숨은 영적 문제 있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을 찾아내서 답을 주고 함께 복음운동 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는 우리가 문을 열고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실질적인 응답도 받았다.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 렘넌트 중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렘넌트 중에서 동료들과 사역하는 렘넌트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영여권 사역자가 너무나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많은 요구가 있는데, 렘넌트들이 눈을 떠야 한다. 내 생각에는 전부 목사 사모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별로 할 일 없는 것 같으면 목사되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왜냐면 중직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도자를 보필하는 중직자도 중요하다. 그 중직자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중직자라고 해서 사역 못하는게 아니다. 사역할수 있다. 말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 말세가 될수록 가장 중요한사람이 사역자이다. 말씀을 전해야 한다.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할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 말세가 될수록 더 필요하다. 특별히 다민족 사역이 그렇다. 말세가 될수록 더 귀한 사역이 목사라면 한번 기도해볼만 하다. 말세가 될수록 바른 복음을 가진 사역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체험된 목사가 세상에서 최고이다. 최고의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보기 바란다. 어떤 장로님은 농담으로 전부 목사되라고 하면 되겠냐고 하지만, 전부 다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되도 괜찮다는 것이다. 중요한 중직자가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자가 함께 되어야 한다. 그게 현장 목사이다. 어쨌든 목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하튼 세월이 흘러 말세가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과 남미는 피할수 없다. 기도해야 한다. 발버둥쳐야 한다. 우리 교회에 그런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서 바란다.

오늘 이삭의 스토리로 하나님은 두가지 말씀 주신다. 첫째는, 너는 내 언약의 근본,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언약으로 잡고 고백해라.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도전해라. 만일 237이 언약이 되면 더 큰 체험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내 말을 받으라는 것이다. 강단을 통해 받고, 개인 기도시간에 받는 것이다. 본부의 말씀이나 현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니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구체적인 말씀을 항상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과 현장의 말씀으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승리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삭이 되었다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도 모리아 산에서 출발해라. 너를 대신해서 죽은 숫양에서 출발하라는 것이다. 항상 여기서 출발해라는 것이다. 그것이 근본이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땅 끝까지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소원이 있다. 진짜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완전 증인 되기를 바란다.